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遺子滿籟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
	勉爾孜孜 惜寸陰 면이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老矣無能 徒自悔 노의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頭邊歲月 苦駸駸 두변세월 고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제9회 둔촌문화제 성대히 개최



제 9회 둔촌문화제 참가자들과 함께

2024년 10월 26일, 성남시에서는 제9회 둔촌문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성남 둔촌문화제는 둔촌선조의 효행과 충절심, 선비정신을 후대로 계승하기 위하여, 성남문화원이 성남시의 큰 어른으로 추앙하고, 역사를 빛낸 성남의 큰 어른 둔촌선생의 고귀한 인품을 기리기 위해, 성남문화원이 주체하고 광주이씨 대종회가 후원하는 문화제

이다. 이날 1부 순서로 아침 일찍부터 대금 독주가 둔촌선조 사당 추모제 경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10시 30분이 되자 성남시립국악단 주숙연 연주자의 아쟁독주 "하얀나무"의 음율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헌화 및 참배식이 거행되었다.

2부 행사는 약 420여 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성남시청 1층 온누리 대강당에서 개

최되었다. 대강당 입구 홀에서는 식전 행사로 성남시 공예명장 제1호 홍연화 명장과 경북지승연구회의 「지승공예책갈피 만들기」, 유명헌 서예가와 글꽃캘리그래피 협회원들의 「나도 캘리그래피 작가체험」, 박지혜 한의학 교수의 「한방차 시음」 행사가 있었다. 본 행사에 들어서는 시(詩)·무(舞)·악(樂)을 주제로 향연이 펼쳐 졌다.



둔촌문화제 지승공예 체험



둔촌문화제 공연



둔촌문화제 캘리그래피 체험

둔촌문화제 주요 행사

식전행사	성남시 소개 동영상
성남시립교향악단 현악 앙상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 또다시
둔촌선생 추모사업 영상 상영	둔촌중국백일장, 둔촌이야기 자리 등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듀오아임 팝페라 모음곡	듀오아임(주세페김, 구미교김)
사물놀이와 모듬북 합주 '둔촌 울림'	타악연희단 소리울
개회	문화원장 인사말, 광주이씨 대종회장 격려사, 성남시장·의회의장 축사
둔촌정훈 콜라보 퍼포먼스	창 : 방영기 명창, 무용 : 정미래, 대금:봉용섭, 휘호 : 유명헌·함미영 서예가
둔촌추모 '큰기침 소리'	성남시립합창단 중창단
생황연주	<새야새야>, <고맙소> 김계희 생황 연주자
2024 둔촌중국백일장 현지 영상 및 소감	중국 심양시 박영철 주임 및 교원
둔촌선생 시작(詩作), 둔촌백일장 입상작 낭송	이주희 연극배우
해금 연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성남시립국악단(해금김경훈, 신디 오세진)
한국무용 부채 입춤 '둔촌'	춤자이 예술단
성남문화가족 공연	① 판소리단가(어화세상 외) - 문화학교 판소리반 수강생
	② 노래교실 '내나이가 어때서 외 1곡' 문화의집 노래교실 수강생
폐회 (기념촬영)	

강동 둔촌백일장 시상식 개최



둔촌백일장 참가자 및 수상자들과 함께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5시, 강동구민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제13회 둔촌백일장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수상자 50여 명(초등부 21명, 청소년부 18명, 일반부 11명), 수상자 가족, 이수희 강동구청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이해식 국회의원, 강동문화원 관계자 등 강동구 관내 주요 인사, 광주이씨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한 지파 회장과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

을 이루었다. 백일장은 지난 7월 20일(토) 강동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작가 지망생 620명이 참여하여 이미 시행되었고, 그동안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

글제는 「기상이변」, 「골목길」, 「새벽」, 「비밀」, 「뒤통」, 「작약」이었으며, 심사는 위원장에 박희 문학박사·수필가, 조영희 시인·수필가, 김태경 강

동문인협회 회장, 김미형 강동문인협회 사무국장, 이경애 아동문학가 등이 수고해 주었다. 둔촌백일장의 응모 분야는 운문(시·시조), 산문이고, 참가 부문은 초등부·청소년부·일반부이며 심사결과 이날 수상자는 각 부문별 장원 1명, 차상 2명, 차하 5명, 입상 10명(특별상 : 초등부 5명, 청소년부 5명)이었다.

백일장 참가 작가 지망생 현황

구분	초등부	청소년부	일반부	합계
운문	96	94	142	332명
산문	78	76	134	288명
합계	174명	170명	276명	620명
	(관내 104 / 관외 70)	(관내 47 / 관외 123)	(관내 164 / 관외 112)	(관내 315 / 관외 305)

한편 강동문화원 신동명 원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둔촌백일장」을 모범적으로 시행하여, 문화발전에 공헌한 공적으로, 지난 9월 한국문

화원연합회 제17회 대한민국문화원상 시상식에 서 우수상(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다 고 인사를 전하였다. 강동문화원은 제13회 둔촌

백일장 수상 작품을 발간하여 전국 문화원, 문화원 회원, 수상자, 관내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배부하였다.

제13회 둔촌백일장 수상자 명단

(초등부)

구분	성명	소속	부문	제목
장원	오세영	서울선사초등학교 6학년	산문	나의 어릴적의 추억 '텃밭'
차상(2)	1 오주은	서울명원초등학교 3학년	산문	제가 생각하는 새벽은 무엇이나면
	2 이윤제	홈스쿨 (초1)	운문	텃밭
차하(5)	1 신준혁	서울공덕초등학교 4학년	산문	비밀
	2 김민선	서울선유초등학교 6학년	산문	동메달
	3 유서진	보정초등학교 4학년	산문	'쓱쓱 알레그로' 와 함께한 시간
	4 최지유	서울압구정초등학교 6학년	산문	청포도 맛 비밀 하나
	5 이윤하	서울녹번초등학교 6학년	운문	기상이변

(청소년부)

구분	성명	소속	부문	제목
장원	진해은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운문	달팽이의 귀갓길
차상(2)	1 김시아	동주여자중학교 3학년	산문	골목길 속 빛나는 별
	2 임윤완	대제중학교 2학년	운문	내 마음에 기상이변
차하(5)	1 김동현	은평고등학교 3학년	산문	텃밭
	2 박시준	심석고등학교 2학년	산문	비밀의 정원
	3 이서형	오주중학교 2학년	운문	기상이변
	4 김혜령	대광여자고등학교 3학년	운문	새벽이 끝나는 날
	5 김민지	영덕고등학교 3학년	운문	비밀

(일반부)

구분	성명	소속	부문	제목
장원	임성원	경기도 남양주시	산문	들꽃
차상(2)	1 김민성	광주광역시 남구	운문	골목길
	2 백정훈	서울시 송파구	산문	나를 찾아 나선 길
차하(5)	1 김재윤	광주광역시 남구	운문	텃밭
	2 홍원주	경기도 양평군	산문	새벽
	3 서순영	서울시 강동구	산문	대화
	4 안규희	서울시 은평구	운문	비밀
	5 이유민	경기도 남양주시	운문	이중국적 소녀의 비밀

대중회 단신

■ 중국 둔촌 백일장 대회

2024년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중국심양시에서 개최된 한국의 날 행사와 더불어 둔촌백일장이 시행되었다.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면 관계상 다음 호에 게재하고자 한다.

■ 서예 공모전 전시회 주영 회장 작품 출품



대중회 주영회장 출품작품

10월 8일(화)부터 12일(토)까지 제28회 세계문화예술대전 국제교류전 및 공모전 전시회가 경북 영덕에서 개최되었다. 세계문화예술 발전 중심, 영덕군, 국회 한정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13개 국가의 700여 작품이 전시된 대규모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세계 서화가 작품을 통

해 서화가 문화의 동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중회 주영 회장은 「유지만영금 불어 교일경」, 둔촌 선조의 정훈을 출품하였으며 평소 서예 습작을 꾸준히 해 오던 중 전시회에 출품 요청을 받고 작품을 출품하였다고 하였다.

■ 2024년도 제례교육



대중회는 2024년도 선대조 세일사 봉행을 앞두고 10월 24일 제례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년도 대중회 주관 세일사 봉행을 주관할 지파는 광릉부원군파종회와 문경공파종회이다. 이날 교육에는 양 지파 및 타지파

종회 참관인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교육과 함께 진지한 예행연습을 하였다.

■ 둔촌2동 주민 축제의 날 행사(둔촌선생 서화전)



2024년 10월 27일 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주민자치센터 주관으로 강동구 소재 일자산 잔디 광장에서 둔촌동 주민 제2회 축제가 있었다. 대중회는 주민센터의 요청에 따라 동 행사에 둔촌선조 관련 서예가들의 작품과 영정 등 10점을 전시하였다. 이날 일자산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는 홍보책자를 나누어 주었으며 시민들은 관심을 갖고 부스를 찾아 관람하였다.

지파중회 소식

광릉부원군파중회

10월 화수회 월례회의 개최

광릉부원군파중회 화수회(회장 종길)에서는 2024년 10월 21일(월) 10월 화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화수회 두영 부회장을 비롯해서 대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봉수 종회 회장 등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종봉 총무의 진행으로 성원보고,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 부회장 인사, 종회 봉수 회장 인사, 대종회 용



화수회

두 상임 부회장 격려사, 경과보고, 문수 총무 종회 소식, 기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종길 회장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며 안부

를 전하였고, 두영 부회장은 인사에서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에 영천에 계신 당(唐)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각 지파 선조님 세일사에도 많이 참사(參祀)하시기 바랍니다” 며 당부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기타 사항으로 지난 9월 경기 광주시 도척면 방도리에 거주하는 종봉 회원이 작성한 토란을 30여 봉 기증하여, 회원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이후 자리를 식당(마포 갈비집)으로 옮겨 식사와 반주를 곁들이며 화친 돈독의 시간을 보낸 후 귀가하였다.

광릉부원군 묘소 주변 및 둘레길 미화 작업 실시



광릉부원군 묘소 둘레길 환경미화작업

광릉부원군파 중회에서는 2024년 10월 9일 광릉부원군 묘소 주변을 비롯해서 고덕산 둘레길(그린웨이) 청소와 환경미화 작업 행사를 실시하였다. 고덕산은 강동구 도심에 유일한 산으로 광릉부원군 파조의 유적이 존치하고 있으며 1993년 3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다. 고덕산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등산객이 이곳을 찾는다.

이날 행사에는 본 종회 만재 부회장을 비롯해서 문수 총무, 그리고 배드민턴 모닝클럽 김종인 회장과 회원 80여 명의 참석하여 행사에 함께하였다. 회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둘레길을 맡끔

히 청소하고 광릉부원군 파조의 음덕을 듬뿍 받았다. 이후 회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배드민턴 경기와 가을 음악축제를 개최하고 광릉부원군 파조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한편 이날 만재 부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뜻깊은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고, 회원들께서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며 인사하고 특히 이날 수고가 많았던 모닝클럽 김종인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축사에 같음하였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한 만재 부회장께 경의를 표한다.

광릉부원군파 김포 검단 이언공 종회 봉안담 준공식 및 고유제 봉행

광릉부원군파 대사헌공계 이언공 종회(회장 주훈)에서는 2024년 10월 13일(일) 오전 11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쇠암리 164-45 소재에서 봉안담 준공 기념식 및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언공 종회 주훈 회장을 비롯해서 주돈 주손, 내빈으로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 광릉부원군 종회 문수 총무이사 그리고 이언공계 후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기념식은 이언공계 종회 영수 총무의 진행으로 내빈 소개, 봉안담 설치

및 준공까지의 경과보고, 주훈 회장 인사, 주돈 주손 인사, 형수 前 회장 인사, 축사에는 필재 고문, 그리고 격려사는 대종회 용두 상임 부회장이 집행부 노고에 대한 격려사가 있었다.

봉안담 설치의 배경에는 입향조(入鄕祖)이신 이언(諱 以彦)공 선조의 후손들이 영면하고 있는 유적이,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천장을 모시게 되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임원회의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신중한 토의 끝에 천장을 모시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22년 2월 천장을 모실 토지를 매입하고, 관계기관에 허가를 득한 후, 2023년 10월에 착공식을 가진 후 9개월 만인 2024년 7월 31일 봉안담을 완공하게 되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길일을 택하여 2024년 10월



김포 검단 이언공종회 봉안담 준공식

13일 이언공 후손들을 초청하여 준공 기념식을 갖고, 토지신에게 무탈을 비는 고유제를 올렸다. 끝으로 봉안담 설치를 위해서 각고의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이언공 종회 종인 화합과 종회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광릉부원군 18대손 종준(상준) 박사학위 취득



종준 종인

광릉부원군(諱 克培) 18대손 종준 종인이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종준 종인은 1994년 서울시 관악구 봉림중학교 졸업, 그리

고 1997년 당곡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종준 종인은 명지대학교 교통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201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환경계획학을 전공하여 2022년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학위 등록 번호 서울대 2022<박> 0734) 종준 종인은 현재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에 있으며 교통계획 및 교통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종준 종인은 올해 45세로 부인 이선희(경주인)

와 혼인하여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世系는 1대 둔촌-2대 지직-3대 인손-4대 극배 -5대 세충 -6대 소공- 7대 이진 -8대 종근 -9대 경제 -10대 부담 -11대 봉의 -12대 수사 -13대 도옥 -14대 태하 -15대 낙현 -16대 기주 -17대 열회 -18대 병소 -19대 찬래 -20대 용옥 -21대 구재 -22대 종준(상준) 이다

■ 광릉부원군파 대전해주목사공계 지중추부사공 종회 묘소참배

대전 해주 목사공계 지중추부사(휘 사함)공 종회(회장 익재)에서는 2024년 10월 19일 영천 당(諱 唐)할아버님 묘소를 찾아 참배를 드리고 귀환하였다. 이날 참배에는 부사공 종회 익재 회장을 비롯해서 현재 부회장, 종순 총무 등 50여 명의 종인이 승용차와 버스를 대절하여 묘소를 찾았다. 후손들은 아침 일찍 대전 유성에서 출발하여 2시간 30분을 끝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익재 회장의 안내로 묘소에 도착한 후손들은 정성껏 준비한 주과포를 진설한 이후 익재 회장으로 부터 당(唐)할아버지께서 이곳 영천까지 오신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

둔촌 선조께서 고려 말 요승 신돈의 정치 횡포를 비판 하시다가 신돈에게 밭보여 살해하려고 하자, 아버지(諱 唐)를 등에 업고 낮에는 숨어 계시다가 밤에 이동을 하시며, 수 십일을 걸어서 이곳 영천에 사는 지기지우(知己之友) 친구인 최사간(휘 元道)을 찾아 몸을 숨기고 최 사간 댁 다락에 숨어서 지내시다가, 1년 후 할아버님께서 서거하셨다며, 이곳에 장사(葬事)를 모신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후손들은 이후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드리고 최 사간공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한편 후손들은 이곳에서



영천 휘 당 묘소 방문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종회 발전과 종인의 화합, 그리고 송조돈목의 시간을 보낸 후 귀환하였다. 지중추부사공 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이사 문수 기

문경공파종회

■ 文景公 서세 556주기 세일사 봉행

문경공파종회(회장 경수)에서는 10월 11일(음력 9월 9일), 봉광성군(封廣城君) 시문경공(諱 文景公) 파조(諱 克堪)의 서세 556주기 갑진년 세일사를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 90-1 번지 묘전에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절기상 가을이지만 금년도 무더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따사로운 햇빛과 들녘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날씨에, 전국 경향 각지에서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송조의 마음을 크게 높였다. 특히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종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종회 석래 회장, 좌의정공파종회 근환 부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대종회 원재 前 상임부도유사, 대종회 곁재 前 총무이사, 광원군파 감사공계 점식 회장, 광원군파 부사공계 은재 회장 및 집행부 상임이사님들이 참석하였으며, 멀리 고창, 전주, 음성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자랑스런 문경공파 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례 시작 전에 공의 명시(名詩) “담담정 (주#1)을 노랫말로 하고 국악으로 곡을 붙여서 노래한 국악을 잠시 감상한 후에 봉행 행사를 시작하였다.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 파조님과 일봉 형님과 의 형제애를 본받아, 모든 종원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고, 대종회 주영 회장께서는 문경공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선조님의 남기신 유업을 잘 계승하는 세일사가 되자 “고 하면서, 세일사에 참석해 주신 각 지파 회장님, 여러 종인들께 대종회를 대신해서 감사

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날 행적소개는 공의 훌륭한 인품과, 그 당시 관직 활동이 잘 표현되어 있는 조선세조실록 13권 세조4(1458)년 6월 29일에 형님이신 광릉부원군 할아버님과 같이 좌익3등공신으로 책훈되실 때의 교서를 소개하였다.(주#2) 제례 봉행에서 초현에는 종회공종회 경래 회장, 아현에는 대종회 원재 전 상임 부도유사, 종현에 우천공계 명수 현종이 헌작하였고, 축에 종길 현종, 집례에 종민 문경공파종회 총무, 집사에는 종덕, 종욱, 승수, 성수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봉행이 끝난 후에는 농막에 둘러앉아 준비한 음식과 주류로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종원 간 담화와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갖었고, 귀경길에는 문경새재로 이동하여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도 아침 일찍부터 제례 준비 및 따뜻한 커피와 어묵을 준비해 주신 충주지역청장년회(회장 종우) 및 며느리 모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1) 담담정 : 마포에 위치한 안평대군의 정자로, 이 시는 청보 이개, 근보 성삼문, 백저 정인지, 범용 신숙주, 중경 성임과 함께 놀면서 지은 시로 명시로 전해 온다.

(주#2) 좌익3등공신 책훈받은 교서 하늘이 장차 비를 뿌리려면, 못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구름을 일으키고, 왕도가 빛나려면, 신하의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공적을 평가한다. 때를 돕는 호걸이 있지 않으면 어찌 비색한 운수를 행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경은 시. 서의 명가에,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후예로서 강개하여 경국제세 하려는 뜻이 있었고 마음이 활달



문경공 556주기 세일사 봉행

하여 조그만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재주가 있었다. 두 번이나 과거에 올라서 오랫동안 경연을 모시니, 문장은 나라를 빛낼 만하고, 의논은 임금을 움직이기에 족하였다. 훌륭한 유아(시문을 짓는 풍류의 도)가 빛나니 빛나고, 드러난 명성이 자자하였다. 지난번에 내가 정사를 보필할 때, 경은 발탁하여 요좌로 삼으니, 고사에 해박한 재주로써 일을 판단 처리하는 데 근거가 있었고, 일을 보면 민첩하게 재결하고, 머물러 두지 않았으며, 서로 더불어 모의를 도와서, 보익한 바가 많았다. 흥도의 여열이 난을 선동 할 즈음과, 나라의 위험스럽고 의심스러운 때에, 경이 능히 그 사이에 주선하여 시종 변하지 않았고, 더욱 충의의 절조를 다하여, 천명의 아름다움을 도왔으니, 그대의 공과 그대의 노고를 감히 잊어버리겠는가? 이에 좌익3등공신에 책훈하여 그 부모와 처에게 봉작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전지80결, 노비8구, 백은25냥종, 표리1단, 내구마1필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수령하라. 아아 마음과 몸을 다하여, 길이란 가지 덕을 지니도록 하며, 산하와 대려(임금이 공신의 집안을 영구히 변치않고, 대접한다는 맹세)로써, 후세에까지 변치 않기를 기약하라.

- 문경공파종회 총무 종민 기

바로 고칩니다

지난호(제403호) 10쪽 산악회소식 3단에 「종찬 회원께서 점심식사비용을 부담하셨다」 를 삽입하고, 5째줄 근찬을 근환으로 정정합니다

■ 정재공(貞齋公. 諱 守貞) 세일사 봉행

가을의 날씨가 유난히도 화창했던 10월 20일 (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구정승골에서는 정재공(諱 守貞) 520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갑자사화에 참화를 당하고 장인이신 신판관(諱 承演)께서 몰래 시신을 수습하여 모셨던 사연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기 어려운 첩첩산중인지라, 후손들은 어렵게 묘역에 올라, 경건하고 엄숙한 예를 올렸다. 이날 세일사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후손 30여 명과, 광릉부원군파 문수 총무, 좌의정공파 시하 총무가 함께 해주었다.

제례 봉행에는 문경공파종회 총무 종민이 집례, 독축에 동고손 종길, 집사에 양호당손 방래, 송덕재손 종덕, 동고손 승수, 송덕재손 영희가 수고한 가운데, 동고손 경수 정재공종회 회장이 초헌을, 송덕재손 주영 대종회 회장이 아헌을, 양호당손 경래 충희공종회 회장이 종헌을 헌작하였다. 공에 대하여는 모든 후손들이 안타까움과 아프고 슬픈 역사를 알기에 봉행하는 내내 착잡한 마음들이 엄숙함을 더했다.

조선의 훌륭한 어머니 신씨부인

○ 증정경부인(贈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상서원 판관(常瑞院判官) 승연(諱 承演)의 따님이시며, 고조부는 제정공(齊靖公) 도총제 신희창(申孝昌) 증조부는 증좌의정 자수(自守)이다. 아름답고 뛰어난 덕(德)이 있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배출시킨 모범적인 어머니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항상 이르기를 「과부의 자식은 남이 더불어 사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으니, 반드시 학문에 열 겹 절을 더 부지런히 하여서 너의 집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 경자(庚子 1480)년에 탄생하시어, 중종 갑신(甲申 1524)년 1월 25일 서거(逝去)하시니, 향년 45세로 공과 합장(合葬)하였으며 슬하에 2남을 두시었다.

○ 사실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 국가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배출시킨 모범적인 어머니들을 우리는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가령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 신씨, 김만중의 어머니 윤씨, 이준경의 어머니 신씨, 한석봉의 어머니 등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 이준경(1499 ~ 1572)의 어머니 신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신씨는 제11대 중종 때의 사람으로 부수찬(副修撰) 이수정(李守貞)의 부인이었다. 신씨는 그 아들 이준경(李浚慶)의 나이 다섯 살 때에 이미 “소학(小學)” 을 가르쳤는데, 연산군 10년의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집안이 화(禍)를 입고, 충청도(忠淸道) 괴산(槐山)에서 유배(流配)생활을 하였다. 중종반정으로 유배생활에서 풀려 서울에 돌아왔으나, 남편은 죽고 집안은 완전히 몰락한 뒤였다. 신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아들의 나이 10살이 되자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때 신씨가 직접교육을 담당했는데 매우 엄격하였다. 신씨는 “효경(孝經)”

“대학(大學)” 등의 유학경전(儒學經典)을 모두 친히 가르쳐 조금이라도 틀린 곳이 있으면 준절히 꾸짖으며, 학문과 인격수양에 게으름이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준경은 뒤에 인신(人臣)으로서의 최고(最高)의 관직(官職)인 영의정(領議政)에 까지 올랐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신씨가 아들에게 수학, 대학, 효경 등의 유학경전을 친히 가르치고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녀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사)

○ 이준경(李浚慶)의 어머니는 남편(男便)과 지위(地位)와 재물(財物)을 다 뺏기고 귀양살이에서도 오로지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서 온갖 서러움과 고난을 극복해 내었다. (한국사회교육연구원 주부교실)

부수찬 증영의정공 묘갈음기(副修撰贈領議政公墓碣陰記)

李公의 자(字)는 간중(幹仲)이요, 휘(諱)는 수정(守貞)이요, 호(號)는 정재(貞齋) 또는 소한재(素寒齋)인데, 광주인(廣州人)으로서 고려말(高麗末) 집(集)의 후손(後孫)이다. 증조(曾祖)는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시충희공(諡忠僖公) 인손(仁孫)이요, 조(祖)는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지낸 광성군(廣城君) 시문경공(諡文景公) 극감(克塽)이요, 고(考)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낸 광양군(廣陽君) 세좌(世佐)이며, 비(妣)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양주조씨(楊州趙氏)인데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근(瑾)의 따님이시다.

공은 성종 8년 정유(丁酉 1477)년 5월 6일에 탄생(誕生)하시어, 사마양시(司馬兩試)에 장원(壯元) 하였고, 연산 7년 신유(辛酉 1501)에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하고,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에 보직되어, 승문원 주서(承文院注書)와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를 거쳐,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이르렀다가,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와 동학교수(東學教授)에 보직되었다. 연산 10년 갑자(甲子 1504) 연산주(燕山主)의 광란(狂亂)으로 광양군(廣陽君)께서 폐비(廢妃)에게 사약(賜藥)을 전한 것이 화근이 되어 내벽(內壁) 임금의 총애를 받는 여자의 재구(讒口) 남을 헐뜯어 꾸며서 말함에 걸려들었고, 임사홍(任士洪)이 제 마음대로 다스려 집안 전체가 큰 화(禍)를 입게 되었다. 그때 공의 나의 겨우 28세였다.

중종(中宗)께서 반정(反正)으로 원유(冤幽)를 밝혀 씻어 주시고, 도승지 겸 부제학(都承旨兼副提學)으로 증작(贈爵)하였다. 그리고 후일(後日) 자귀(子貴)로 이조판서(吏曹判書), 찬성(贊成), 의정



정재공 세일사 봉행

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다. 배정경부인(配貞敬夫人) 평산신씨(平山申氏)는 판관 신승연(判官申承演)의 따님으로, 현덕(賢德)이 있어 두 아들을 명현(明賢)으로 가르치시니, 송덕재(崇德齋)와 동고(東臯) 두 선생이시다. 갑자(甲子 1504)년 5월 13일 사화(士禍)에 공의 부자형제(父子兄弟) 숙질(叔姪)이 동시(同時)에 피화(被禍)되고, 가옥(家屋)이 파괴(破壞)되고 사람이 죽었으나, 아무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참혹(慘暴)한 현장(現場)을 판관공(判官公)께서 구서지의리(舅孀之義理) 장인과 사위간의 의리(義理)로 수찬공(修撰公) 시신(屍身)을 수급(收給)하여 자기집안 세장산(世葬山)에 안장(安葬)했으니, 그 은혜(恩惠)가 하해(河海)보다 깊도다.

불초(不肖) 명익(命益)이 수찬공묘(修撰公墓)에 성묘(省墓)했을 때, 평산신씨(平山申氏)들 선영(先塋)이 좌우(左右)에 보이고, 가운데 수찬공묘(修撰公墓)가 있어 살펴보니, 청용백호(靑龍白虎)가 둘러싸여 혈(穴)이 분명(分明)하게 맺혀있고, 앞에 일자문성(一字文星)으로 안산(案山)이 반혀있어 명당(明堂)이 분명했다. 그러나 판관공(判官公)께서 그 당시 사태를 볼 때 구서지간(舅孀之間)의 정(情)을 특별히 표현(表現)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 옥쇄란분(玉碎蘭焚) 충절을 위하여 깨끗하게 죽는다는 뜻을 몹시 사랑한 나머지 묘(墓)자리를 선정(選定) 수장(收葬)하기로 결심(決心)했으니, 그 의기(義氣)를 매우 높이 평가(評價)할 것이다.

삼가 살피건데, 충정공(忠正公)께서 정헌공(正獻公) 형님이신 송덕재공(宋德齋公) 제사(祭祀)때 글을 보면, 「외가(外家)에서 양육(養育)한지 3주년(三周年)이 되었고, 천일(天日)을 보고 돌아와서, 외왕부(外王父)곁에서 함께 자라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은조(恩照)를 입었다. 머리를 어루만지며 부지런히 학업(學業) 이루기를 기약했으며, 외왕부(外王父)를 모시고 상주(尙州)에 수임(隨任)했다」 고 했으니, 복소(覆巢) 새집을 엮어 알을 깨트린다는 뜻인데 여기에선 아버지의 불행 때문에 아들까지 상한다는 뜻을 당한 끝에 신근(辛勤)히 길러주시어, 성립(成立)하여 국가주석(國家柱石)이 되었고, 자손(子孫)이 번창(繁昌)하여 과갑(科甲)이 상연(相連)하니, 용진(龍津)국내에 이가(李家)의 세장지(世葬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관공(判官公) 큰 아들 직장공(直長公)의 성손(姓孫)이 없어, 충정공(忠正公)께서 입후(立後)하셨다는데,

지금은 그 대(代)를 이을 사람이 없어 잡초(雜草)에 묻혀 있다. 갑자(甲子)년 봄에 정헌공묘(正獻公墓) 가토(加土)할 때 불초 명익(不肖命益), 제 명택(弟命宅), 종제 명일(從弟命一), 족종제 문연(族從弟文淵), 신연(梓淵)등과 판관공(判官公) 묘소(墓所)에 먼저 손질한 것이 영구히 잊지 못할 의리(義理) 때문이다. 우리 수찬공(修撰公) 자손(子孫)들은 모두 판관공(判官公) 묘산(墓山)을 수호(守護)

하는 절조(節操)를 힘써 주기 바라노라.

계미(癸未 영조 39년 1763) 추석일
8대 현손 명익(八代玄孫 命益) 근기

의 선조(外先祖) 판관 부군묘(判官府君墓)를 평산신씨(平山申氏) 대표(代表)들과 우리 송동 양종회(崇東兩宗會) 합의하(合議下)에 2002년 6월 15

일 양서면 목왕리 78의 2번지 우리 세종산(世宗山) 경내(境內)로 이장(移葬)하였으며, 매년 정재공(貞齋公) 시제일(時祭日)에 참사(參祀)한 제관(祭官) 전원(全員)이 성묘(省墓)하기로 하였다. 본 문은 광리 대동보(廣李大同譜)에 의거 기록하였다.

갑신(甲申) 2004년 4월 12일
송·동양종회(崇·東兩宗會) 추기 근건

광천부원군파종회

■ 문정지역종회 청년회 가족 단합대회

광주이씨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 청년회(회장 주훈)에서는 2024년 10월 12일~13일 (1박 2일) 가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친족간의 돈목을 돈독히 하고자 개최하게 된 이번 행사는 바쁜 생활속에 점점 떨어져 가는 친족들 간의 정을 두텁게 하는 청년회 아우회엔 청년회원 30여 명과 그 가족들이



광천부원군파문정지역종회 아우회

함께하는 모임을 주선해 주신 문정지역종회(회장 종관)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 행사는 1박 2일의 제부도로 가는 일정으로, 각자의 승용차로 가는 길은 콧노래가 절

로 나오고, 흥겨운 아이들의 노래 소리와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기는 듯했다. 갯벌 체험으로 바지락 캐기, 낙지잡이, 낚시등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체험행사와 청년들의 단합과 결속을 갖는 경기도 하였다. 날씨도 예전 같지 않아 한낮에는 바다에 들어가도 괜찮은 수온이어서 아이들에게는 무리가 가지 않았다.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너무나도 뜻깊고 재미있는, 보람되고 알찬 행사로 추억하며, 다음에 또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이번의 단합대회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정지역종회 집행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 광천부원군파 문정지역종회 청년회 총무 종인記

좌의정공파종회 소식

■ 한음상공 逝世 41주기 불천위제 봉행

좌의정공파종회(회장 충교)는 지난 10월 9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소재한 재실 쌍송재(雙松齋)에서 한음상공(諱 德馨) 서세(逝世) 41주기를 맞아 불천위(不遷位) 제향을 봉행하였다. 이날은 날씨마저도 시원하고 쾌청하여 행사를 봉행하는데 한몫하였다.

종회는 불천위제에 참석하는 내빈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경의·중앙선 양수역에 전용 영입용 차량 2대를 배치하는 등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재실의 삼문(三門)인 한원문(漢原門)에는 “한음상공 서세 41주년”이라 인쇄된 현수막을 걸어 제례에 참석하시는 모든 참례자를 반가이 맞이하였다.

불천위제에는 주영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각 지파의 임원과 종원뿐만 아니라 특히 한음상공과 막역한 벗으로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오성(鰲城, 호는 백사(鰲城)) 이항복을 배향하고 있는 포천 화산서원(花山書院)의 유금열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한음상공을 배향한 포천 용연서원(龍淵書院)의 이상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시어, 한음상공과 오성대감 두분의 우정을 오늘에 잇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례 전, 많은 참례자 중 일부는 상공의 묘소를 참배하고 대다수 많은 분께서는 쌍송재 뜰에 삼삼오오 모여 상공을 추모하는 환담을 하기도 하고 잘 가꾸어진 재실 주변 환경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공께서는 생전에 음식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곤궁한 이웃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을 우려하여 평소의 생활을 검소하게 하셨던바, 공의 이러한 뜻에 따라 종가가 그동안 차려오던 제물의 예를 종회 또한 그대로 이어받아 제물은 검소하게 차렸으며, 근환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을 알렸다. 초헌관에는 시우(時佑) 종손, 아헌관에는 유금열 화산서원장, 종헌관에는 주영 대종회 회장께서 헌작을 해주셨고, 축관에는 근수 현종이, 집사에는 중순, 무환, 석준, 시만 현종이 각각 맡고 집례는 시하 총무가 맡아 진행하였다. 상공의 행장을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53세라는 길지 않은 삶에서 학문에서의 최고 직책인 문형을 3회, 나라의 최고 직책인 영의정을 3회 역임하신 상공의 행장을 더는 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숙종께서 임신년(1692)에 상공을 배향한 용연서원의 편액을 직접 명명(命名)하고 제사를 내렸는데 이때 함께 내린 제문(祭文)인 사제문(賜祭文)을 숙연하게 낭독함으로써 상공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던가를 다시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주 : 1691년(숙종 17)에 세워진 용연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한음상공께서 나라에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한음상공불천위제 봉행

공께서는 국가에 대한 충정만 높으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재능과 인품 또한 이에 못지않으셨다. 병조·이조판서를 지내고 목재일기(默齋日記)를 저술한 연평부원군 이귀(李貴)가 쓴 “한음언행록(漢陰言行錄)”에는 「나는 어려서 한음과 한 마을에 살았는데 공은 나보다 네 살 아래였다. 윤우신(尹友新)의 문하에서 같이 공부하며 아침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다. 그는 어린 나이에 문장이 뛰어나고 행동이 숙성하여 아이들끼리 놀 때도 희로애락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재주가 뛰어났으나 겉으로는 세우질 않아서 사람들은 그의 글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의 학식과 재주를 알아보고 매우 놀라워했다. 이와 같은 그의 재주와 행동은 타고난 천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총각정승이라 부르며 칭송하였다. 한번은 그를 비방하는 소문이 나돈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의 억울함을 알고 발설자를 가려내어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그가 나서서 정색하며



한음상공 영정

말했다. “이는 나와 가까운 사람의 소행이 분명하니 그 이름을 내가 알면 친구를 하나 잃게 될 것이고 발설자 또한 나를 피할 것이니 모르고 지내는 것이 서로 좋다. 내가 잘못된 것이 없으니 내게 해로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며 다시

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병자년(1576)에 나는 숙부를 따라 경상도 상주로 내려가면서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한음은 시험을 볼 때마다 좋은 성적을 보여서 젊은 나이로 이름이 온 나라에 진동했으나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 부모봉양도 못

할 처지가 되었다. 그는 나의 형편을 소문으로 듣고는 매번 봉록을 쪼개 전해주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던 내 부모 처자를 살려주었다.

나의 스승(울곡 이이)이 무고를 당할 때 나는 스승을 모욕하는 무리에 맞서 그들을 비방하는 상소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어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였으나 한음과 오성만은 조금도 변함없이 나를 대하였다. 더구나 내가 나의 스승을 모욕한 한음의 장인(이산해)을 심하게 비방하였음에도 한음은 그 일로 내게 탄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어느 해 여름 내가 한양에 갔다가 염병에 걸려 다 죽게 되자 한음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한 달 반 동안 정성껏 돌봐주어 나를 살려내었다. 그는 집안 살림에 마음을 쓰지 않아 생활이 늘 궁핍하였는데도 더 어려운 친구들에게 봉록을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면 노비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서 그의 첩이 갖은 고생을 다 하며 노비들을 근근이 먹여 살렸는데 어느 때는 머리를 잘라 팔아 연명하기도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높은 관직을 지냈지만,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여 비단옷을 입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의 인품이 이러한데도 말년에 그를 모함한 자들은 그를 가리켜 행실이 탐욕스럽고 불충 불효하다 하였으니 참으로 경우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쓰고 있는바, 상공의 인품 또한 얼마나 높으셨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례에 참석한 제 종원과 내빈은 제례 종료 후, 인근의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들며 상공을 추모하고 환담하며 화기에애한 친교의 시간을 갖음으로써 제례는 광이 제 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 좌의정공파종회 부회장 근환 記

■ 한음상공 근암서원 추향제 - 근암서원 추계향사 참사기

경북 문경에 소재한 근암서원(近巖書院)은 2024년 10월 14일 추계향사(秋季享祀)를 봉행하였다.

근암서원은 1665년(현종 6) 우리 광이의 한음(漢陰) 선조님과 이조좌랑과 교리를 역임한 부계홍씨 문중에 우암(禹庵) 홍연충(洪彦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고 이곳에 위패를 모셨다. 1693년에는 이조좌랑과 전한 등을 역임한 상주김씨 문중의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과 병조좌랑과 사간을 역임한 부계홍씨 문중의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를 추가 배향하였으며, 1786년에는 효령대군의 7대손으로 병자호란 이후 벼슬에 뜻을 버리고 학문에만 전념한 활재(活齋) 이구(李渠)와 <역통>, <대상편람>, <사서강목> 등을 저술한 학자인 연안이씨 문중의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및 지증추부사와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청대집> 등을 저술한 안동권씨 문중의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을 추가로 배향하여 총 7분의 성현을 배향한 서원이다.

근암서원은 한음(漢陰) 선조께서 배향되신 또 다른 서원인 포천 용연서원과 달리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었다가 1982년 9월 유림에 의해 복원되어 지금에 이른 서원이다.

이번 추계향사를 위해 지난 5월에는 운영위원회 구성하였으며, 더위가 한창이던 8월에는 향사 봉행을 위해 3인의 헌관 및 축관과 집례자 등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으며, 9월에는 향사 진행을 위한 통문 및 각종 문건을 집행하는 등의 각종 준비절차를 거쳤다.

이번 향사에 우리 지파에서는 근찬 화수회장과 무환 화수회 총무 등 3인이 참여하기로 하였는바, 위 3인은 당일 새벽 의왕역에서 만나 영동고속도

로에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다 괴산휴게소에 들려 커피를 한 잔씩 마신 후 현장에 9시 5분경 도착하여 유복을 갈아입으려 서재로 향하니 안에서 “근환이 어서 와!” 하고 반기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경에 사시는 지역 유림 중 한 분으로 우리 종회가 근암서원 향사에 잘 참여하지 못하던 시절부터 한음 선생 문중을 대표하여 근암서원 향사 등에 참여해오신 문경공파의 총재(忠載, 광이 21대, 사진의 흰색 유복) 직전 근암서원장님이 먼저 오셔서 반겨 주셨다.

의관을 갖추고 한숨 돌리려니 옆방에서 총재 전원장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에 우리 일행이 그 방으로 들어서자 유복을 갖춰 입고 방에 둘러 앉아 있던 모든 분이 일어나고, 흥만부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를 소개한 후 인사를 하자고 하니 모두가 옆드려 맞절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중 몇 분이 우리 문중 회장님께서 못 오신 것 같다는 말씀에, 애초에는 오늘 오시려고 했으나 오늘이 마침 “오성과 한음”으로 이미 잘 알려진 한음 선생과 절친하게 지내셨던 백사 이항복 선생이 배향된 화산서원에도 추계향사가 있어 그곳으로 가셨다는 말과 함께 지난 10월 9일에 한음 선생 불천위제를 봉행했는데 위 화산서원 원장을 비롯한 서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제례에 참석하셨고 유금렬 화산서원장께서는 아헌관을 맡아 헌작까지 해주셨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했다.

아울러 400여 년 전에 꽃 피웠던 두 분 선조님의 두터운 우정을 후대에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두 문중이 교류하고 있다는 말 또한 빼놓지 않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한 참사자들께서는 요즘 세태에 좋은 귀감이 될만한 일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내심 부러워하는 눈치도 보였다. 내가 원



근암서원 추계향사 참사

하던 반응이었다.

오전 10시에 강당에 모여 각종 준비절차를 수행하는데 약 1시간, 현지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11시가 넘어서야 제례를 봉행하였는데 일곱 분이 나 배향된 까닭에 소요시간도 1시간 30분을 넘겼다.

그동안 몇몇 서원의 향사 등에 참여해 보았는데, 아마도 근암서원의 향사는 그 절차나 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서원과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였다.

근암서원 향사에 다녀와서는 문화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문화란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가는 지역의 자연에 적응하고 그것을 이용하며 그에 적합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문화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자연환경이 비슷한 지역일지라도 각 개인의 생각과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방식과 수단 등이 다를 터이므로 자연환경이 비슷한 지역이라도 문화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것이다.

조상을 숭배 또는 현양이라는 목적이 같더라도 그 절차나 방식 즉, 문화적 차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 한음상공종회 부회장 근환 記

관찰사공종회 소식

■ 광주이씨 관찰사공 종회 제1회 관찰사공 종인의 날 개최

- 일시 : 2024년 10월 6일(일) 11:00
- 장소 : 벨라루체 웨딩홀(휘경동)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광주이씨 관찰사공종회(회장 재석)에서는 관찰사공(諱 禮孫)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둔촌 선조의 백대지친 유훈을 받들어 종인 간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는 제1회 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광주이씨 대종회 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용두상임 부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좌의정공파종회 충고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 석담종회 병구 종손, 대종회 독립

유공자유족회 용위 회장, 10개 지파 집행부 종직자 등, 이 밖에도 참판공파 영광 종인, 좌통례공파 칠곡 종인 등 478명이 참석하여 벨라루체 웨딩홀을 가득 메우고 성대하게 축제를 개최하였다.

재석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순국선열과 선조님 영령에 대한 묵념—내빈 소개—경과보고—모범종인 표창—회장 인사—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순서에는 오찬과 여흥의 시간이 마련되어 흥겨운 잔치의 마당이 되었다. 행운권 추첨에서 25분의 종인과 3분의 종인이 한우 세트의 주인공, 대상 등의 3명이 골드바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날 참석하신 모든 종인 분들께는 임금님표 여주쌀 4kg와 좌통례공파 통제사공 종회에서 협찬한 기념타올을 양손 무겁게,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한가득 안고 퇴장하였다. 관찰사공 종회



제1회 관찰사공 종인의 날 개최

재석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오늘의 행사는 끝이 났고 흥겨웠던 노래자랑도 마무리가 되었다. 많은 내·외빈이 머물고 간 자리에는 두고두고 기억될 추억만을 남긴 채 연회장은 다음 2회를 기다리며 아쉬운 마음을 달랠다. 끝까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배웅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찰사공종회 총무 종우 기

목사공파종회 소식

■ 목사공파 후손 120명 한 목소리 목사공파 발전·화합 토론회

목사공의 후손 네 계파로 구성된 목사공파가 9월 21일, 광주이씨대종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목사공파 발전·화합 토론회'에서 갈등의 감정과 화합의 열정이 뒤섞인 격정의 토론 끝에 한 목소리로 "화합이 발전"이라 연호하며 뜻을 모았다. 토론회 패널 위원은 일원공계는 성열, 좌운, 종윤, 종원공계(우윤공계종회)는 종후, 종화, 진수, 정원공계는 병진, 영균 그리고 계원공계는 춘신종회장, 치구 종인께서 참석하였고 토론회 의장은 종익, 총무는



목사공파 발전 화합 토론회

종인 종인이 진행하였다.

토론회의 주요 이슈는 그동안 갈등의 중심인 '지분투자 약정', 관련 민사소송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민감한 사안으로 소송 당사자인 목사공파종회와 우윤공계종회의 위원들께서 감정섞인 격정의 발언이 오

고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견되었기에 토론 규칙을 정하였지만 토론 위원들은 서로 감정 섞인 발언들로 자칫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의장의 균형있는 진행으로 중요한 토론 흐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하신 위원들께서 앞으로 목사공파는 화합을 해야 한다. 화합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한다. 화합만이 목사공파의 살길이다. 라는 중론을 모았다. 토론회에 이어진 한참 늦은 회식 자리에서는 뜨거운 화해의 장면으로 춘신 종회장과 종화 종회장의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이 모습이 앞으로 목사공파의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지길 다 함께 열망한다. 한편, 목사공파 카페에서 발전·화합 토론회에 120명의 목사공 후손들이 뜨거운 관심과 화합에 대한 열망을 결집하였다.

■ 목사공 후손 종윤 현종 수원향교 제52회 전국 한시백일장 차하 수상



종윤현종 제52회 수원향교 전국한시백일장 수상

목사공 후손 종윤 현종이 지난 10월 4일 개최된 수원향교 제52회 전국 한시백일장에서 차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종윤 종인은 광주이씨목사공

파 예비시정공계 만호공종회의 종인으로 목사공파종회 사적심사위원회와 대종회 대의원으로 종사에 참여하고 있고 목사공파 보학문화유적답사 친목모임인 보문회 활동에도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다. 종윤 종인은 한학과 유학 경전, 한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학하여 현재 수원향교 掌議로 봉직하고 있다.

<차하 수상작>

詩題:遲遲臺下 松晚翠

(지지대 아래 소나무는 늦도록 푸르구나)

- 作詩 : 이종윤

遲遲臺下老松行 (지지대하노송행)

지지대 아래 노송이 늙어서 있는데

萬樹叢中不變蒼 (만수총중불변창)

많은 나무들 중에 변함없이 푸르구나
寒雨堪當依舊立 (한우감당의구립)
차가운 비 견디며 오래도록 서있고
朔風忍耐到今長 (삭풍인내도금장)
삭풍을 인내하며 지금까지 이르네
堂堂氣像孤凌雪 (당당기상고릉설)
당당한 기상 외로이 눈을 견디고
凜凜儀容獨傲霜 (름름의용독오상)
름름한 모습 서릿발에도 꼳꼳하니
伴鶴千年同苦樂 (반학천년동고락)
학과 짝하여 천년동안 고락을 함께하니
淸標節操孰能忘 (청표절조숙능망)
청표하고 고상한 절조 누가 능히 잊으랴

- 목사공파종회 총무이사 종익 기

■ 목사공파 용진 현종 석탑산업훈장 수훈

광주이씨목사공파 정량공계 용진 현종이 지난 10월 1일 열린 제77주년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용진 종인은

30여년간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 사무국장, 회장, 도연합회 감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인들의 권익향상에 앞장서 왔고,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와 후계 인력 양성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용진 종인은 “횡성군연합회, 도연합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땀으로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수훈소감을 밝히며 광주이씨목사공파 종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진현종 철탑산업훈장 수여

■ '목사공의 따님 광주이씨와 사위 김영명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문회 답사팀 (左 화준, 영균, 김종길 종손, 종윤, 종익, 범수 회원)

- 목사공파 보문회 목사공 표준행장 사료 발굴 답사기 재구성

목사공 표준 행장 사업

목사공파종회는 목사공의 행장을 새롭게 써나가는 수준으로 보완하여 보화적으로 완결된 표준행장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존 목사공 행장의 기록을 단초로 표준 행장 사료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목사공의 따님이신 광주이씨의 출가와 孀家의 기록을 찾아보며 그 분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니 광주이씨족보 경술보는 '女 金永命 縣監 (여 김영명 현감)', 갑진보는 '女 金永命 縣監 義城(여 김영명 현감 의성)' 단 여덟 글자 뿐이다. 의성김씨 김영명씨가 목사공의 사위이다. 의성김씨의 어느 가문일까? 김영명씨를 찾아보니 놀랍게도 '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종가의 선조로 학봉 김성일의 五代祖이다. '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종가는 김성일의 선친이신 청계(靑溪) 김진(金璣, 1500~1580)을 증시조로 모시는 의성김씨 내앞 종택(청계종택)과 함께 안동 유교문화권을 대표하는 종택이다. 내앞 종택은 조선 선비의 강렬한 기개가 전해오는 집, 이 집안에서 청계 김진의 아들 5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했다 하여 '오자등과택(五子登科宅)'으로도 불린다. 약봉 김극일, 귀봉 김수일, 운암 김명일, 학봉 김성일, 남악 김복일 등 5형제는 내 앞, 신당, 금계, 예천 등지에 종택과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義城金氏 金溪 鶴峯 金誠一 宗家 鶴峯宗宅 어느 새 가을인가?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 초입 10월 5일, 보문회 답사팀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안동'으로 향했다. 목사공의 사돈 가문인 '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종가 학봉종택'을 방문하여 목사

공 표준 행장의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서였다. 인천과 용인, 세종시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이 출발지인 경기도 이천 경강선 부발역에서 오전 8시 30분 회동하여 두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타고 안동에 도착하여 일정을 시작하였다. 오전 11시, 안동시 서후면에 위치한 학봉종택에서 종손이신 김종길님의 안내로 경상북도 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학봉종택을 방문하였다.

학봉종택 위상의 바탕에는 유교문화권을 대표하는 안동에서 학봉 김성일의 위상에서 비롯된다. 학봉 김성일은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 안동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과 그 위상이 같다.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병호시비이다. 병호시비(屏虎是非)는 1620년(광해군 12) 이후에 안동을 비롯한 영남 지역 유림들이 병파와 호파로 나뉘어 전개된 분쟁이다. 1620년 여강서원(호계서원)을 건립하면서 유성룡과 김성일의 배향(配享) 때 위치(位次) 시비를 계기로 안동을 비롯한 영남 유림들이 서애 유성룡家 병산서원의 병파(屏派)와 학봉 종택 호계서원의 호파(虎派)로 나뉘어 전개된 향전(鄕戰)이다. 1620년 이황(李滉)을 주향으로 모신 여강서원에 이황의 대표적인 제자인 유성룡과 김성일 두 사람의 위패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제기된 논란이다. 학봉종택은 종택과 사당, 그리고 학봉기념관과 사료 및 기록 보관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학봉기념관은 학봉 김성일의 학문적 위상과 정치적 역정,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는 유물과 문적들이 전시되어있다. '조정외 호랑'이라 불렀던 학봉 김성일(1538~1593)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국가적인 운명과 관계된 功過로 우국, 애민, 충정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퇴계 이황의 학문적 수제자로 퇴계 성리학의 적통을 이어 수많은 門人들을 배출하였다.

우국충정의 정신 깃든 '학봉역사문화공원' 개원

학봉역사문화공원은 학봉 김성일의 우국충정의 정신을 오늘에 기리고 교육문화의 장으로 활용하



학봉역사문화공원

기 위하여 9월 30일 개원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우국충정의 의병활동과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이끈 그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유물과 기록들이 흥미로운 구성으로 전시되어있다. '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종가 학봉종택'은 목사공파 종회를 개원기념식에 초대해주셨고 목사공파종회는 기념 화환을 전달하고 보문회 답사팀이 예방하였다.

목사공의 사위 金永命과 배우 光州이씨

목사공 따님은 장자인 김한계(金漢啓)를 낳았다. 보문회 답사팀은 학봉종택 김종성 차종손의 협조로 학봉종택의 족보 등 문중문헌과 문서들의 기록에서 목사공의 사위 김영명공과 배우이신 광주이씨의 기록을 확인하여 정리하였다.

학봉종택의 족보 등 문중문헌과 문서들의 기록

1. 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종가 소장 '신미 완의(辛未 完議)' 기록



辛未 完議(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종가 소장)

① 신녕현감부군(新寧縣監府君)

청계공 김진(金璣)의 고조부인 김영명(金永命, 1398~1463)으로, 자는 극배(克配)이다. 1429년(세종11)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신녕 현감을 지냈다.

② 후배(後配) 권씨 부인(權氏夫人)

김영명은 부인이 셋이니, 정실부인은 이지유(李之柔)의 딸인 광주이씨(廣州李氏)와 김무(金務)의 딸인 광주김씨(光州金氏),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이 단종(端宗)의 국구(國舅)인 권전(權專)의 딸인 안동권씨(安東權氏, 1412~1499)이다. “

2. 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종가 소장

'門中 完議' 기록

"원사(院事) : 김한계(金漢啓, 1414~1461)를 지칭한다. 김한계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형운(亨運)이다. 증조부는 김



門中 完議(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증가 소장)

거두(金居斗), 조부는 김천(金滄), 부친은 현감 김영명(金永命)이고, 어머니는 이지유(李之柔)의 딸이다. 1438년(세종 20) 생원으로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집현전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451년(문종 1) 좌정언(左正言)이 되고, 경연(經筵)에 출입하여 문학으로 이름이 높았다. 기주관(記注官)을 겸하여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55년(세조 원년) 세조가 즉위하자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를 임명받았으나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다. 또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으나 사양하였다."

3. 한국간찰자료선집12.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김성일)종택편(한국학중앙연구원)

4. 안동 금계 의성김씨 학봉(김성일)종택의 족보 기록

자료 : 義城金氏世譜(의성김씨세보)

5. 증보 경사유방(增補 景泗流芳) : 川上文化保存會 (천상문화보존회)

목사공 표준 행장 사료 발굴의 의미

목사공의 사위 김영명은 학봉 김성일의 五代 祖이시다. 世系는 김거두, 김천, 김영명(목사공의 사위), 김한계, 김만근, 김예범, 김진(청계공), 김성일(학봉)로 이어진다. 김영명은 字는 극배(克配), 조선 태조 7년 戊寅년(1398년)에 안동부 풍산에서 출생하고 세종 11년 己酉년에 사마시에 급제하시어 관직은 신녕(新寧)현감 겸 권농판관(勸農判官)과 대구병마단련판관(大邱道兵馬團練判官)을 역임하고 세조 9년(1463년) 계미년에 향년 66세로 돌아가셨다. 묘소는 안동읍 서쪽 안기 임피사에 子坐午向에 모셨다가 1991년 와룡 전암의 부친의 묘하로 옮겨 모셨다. 현감공은 4남 4녀를 두셨다. 정실 배위는 광주이씨시니 목사 之柔의 따님이시다. 1남을 두셨으니 아드님은 한계(漢啓), 원사공(院事公)이시며 관직은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이시다. 광주이씨께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묘소를 전암의 媿父이신 김진 묘하에 모셨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는 시간, 목사공의 따님이신 광주이씨에 대한 기록이 광주이씨 족보에는 존재하지 않

는 사실들을 발굴하는 순간이었다. 선조이신 광주이씨의 삶의 기록을 접하며 그 분에 대한 애뜻함이 가슴에 차오른다. 유교문화인 족보에서 소외된 존재, '여성'의 기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김영명과 광주이씨의 맏아드님이신 김한계의 생몰기록은 목사공의 연보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라 생각되어 살펴보았다. 김영명은 조선 태조 7년 戊寅년(1398년)에 안동부 풍산에서 출생하셨고 세조 9년(1463년) 계미년에 향년 66세로 돌아가셨다. 김한계는 태종 14년 갑오년(1414년)에 출생하여 세조6년 신사년(1461년)에 돌아가셨다. 김영명과 長子이신 김한계의 생몰년대는 목사공의 연보를 추정하는 근거로 의미 있는 사료발굴이라 생각된다. 보문회 답사팀을 초대 해주시고 문중의 문헌기록을 제공해주신 '의성김씨 금계 학봉 김성일 증가 학봉종택'의 김종길종손과 김종성차종손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보문회 답사기행을 마무리하며 목사공 표준 행장은 광주이씨족보를 시작으로 행장 내용과 관련되는 조선왕조의 국가기록과 여타의 문헌, 그리고 다른 성씨의 보화 문헌 자료를 살펴보며 이 과정에서 발굴되는 사료를 통하여 완결성을 갖추어 갈 것이다.

- 목사공파종회 총무이사 종익 김

광주이씨 광문회 정기모임 개최

광주이씨 문화 친목회(광문회, 회장 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는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6시 명동 소재 퍼시픽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하였다.

모임이 저녁 시간이라 먼저 식사를 하면서 회원 상호간 근황을 소재로 즐겁고 정담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본회를 개최하고, 참석하신 모든 회원 소개가 있었다. 달곤 광문회 회장은 인사 말씀에서 집성촌 소개에 대한 취지와 새로 부임하게 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대총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과 종인들이 어떤 영역에 있는지 또한 필요한 부분 있는지 확인 돕겠다고 하셨다.

이어 대총회 주영 회장의 대총회 행사에 대한 소개와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10월 18일(금) 강동문화원의 둔촌백일장 시상식과 10월 26일(토)에 개최되는 둔촌 문화제에 많



광문회 정기모임

은 종인께서 참석해주실 것을 그리고 11월 2일(토)에 시조 판서공(휘 당) 세일사부터 시작하는 금년 시제에 많은 참석으로 선조님들께 송조의 예를 갖춰주기를 당부하셨다. 이어 광문회 특강으로 칠곡 집성촌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이씨 보성 집성촌 유래와 가풍"이라는 주제로 광원군파종회 양진재공공회 용정 문화이사(광주소재 향교 한문강사)를 모시고, 보화 강의를 겸한 보성 입향

조의 내력과 집성촌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강의의 일성(一聲)으로 "근본을 잊지말자! [만물은 하늘을 근본 삼고 사람은 祖上을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며, 보성(광주·전남) 지역의 광주이씨의 인구 분포와 집성촌 유래와 인물, 종가, 고택과 제실(문화제), 인물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다. 멀리 광주에서 특강을 위해 많은 준비와 열성을 다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문회는 각 지역 집성촌 방문의 기회도 만들고 내년 세 번째, 집성촌 소개로 문경공(휘 극감) 증가(충주)를 정하여 준비토록 하고자 한다. 광문회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廣李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힘쓰려고 한다. 종인들의 배려와 관심 부탁 드린다. 끝으로 기념촬영과 함께 행사를 마쳤다.

- 광문회 총무 종철 김

광주, 전남종친회 충주 문효사 유적지 답사

지난 10월 8일 광주, 전남 종친회(회장: 금재)에서는 정해진 일정에 의하여 집성촌 충주를 답사하기 위해 모였다.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광차를 대절하여 들뜬 마음으로 오전 8시에 광주역 앞에서 출발하였다. 전날까지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 이날은 화

창한 가을 날씨가 되어 차창밖의 풍성한 가을의 경치를 보게 되어 한층 기쁜 마음이었다. 유난히도 무더워 짜증났던 지난 여름, 그러나 그여름 덕분에 이 가을이 이토록 아름답고 풍성하는 것 같아 조물주의 위력에 다시 한번 머리가 숙여진다.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오늘 답사에 도움을 주고

자 금재회장님의 충주 문효사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조선조 제10대왕 폭군 연산군의 악행으로 갑자사화를 조장하여 우리 광이 집안과 특히 문경공의 아들두분과 손자네분들을 포함하여 아홉분이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모두가 숙연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 쉬기도 하

였다. 다행히도 갑자사화 후 2년만에 증종반정으로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이미 화를 당하신 일문가족의 원한은 무엇으로 보상받겠는가? 11시 30분경 충주에 도착하니 충주 증친회장 원재 씨와 전청장년회장 영희씨가 환영해 주셨다. 특별히 원재옹(翁)께서는 검정개 참쌀떡으로 푸짐한 선물을 주셨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첫 번째 답사로 문경공 선조의 산소에 올라 참배하고 이어서 문효사를 방문하여 酒果脯를 올리고 광주, 전남 증친회에서 보러 왔다는 고유제(告由祭)를 올렸다. 문효사는 문경공을 주벽(主壁)으로 광양군(휘 세좌), 정효공



광주전남증친회 유적탐사

(휘 연경), 충장공(휘 광약)을 배향(配享)한 사당(祠堂)이다. 우리 광이는 고려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대과 급제자를 199명(려조 11명, 이조

188명) 배출하였는데 문경공파에서 65명을 배출한 가문이다. 탄수선생이나 송덕재, 동고대감처럼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왔고 충장공처럼 훌륭한 무관출신도 많이 나왔다. 고위직의 벼슬에 등용되어 갑자사화는 물론 기묘, 을사사회에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우리 광이의 위상을 한층 높이신 문경공파 선조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들이다. 오후 3시경 돌아오는 길에 탄수선생 산소에 망배하고 광주에 돌아와 저녁을 함께 나누고 헤어 다. 유난히도 감회가 깊은 하루였기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광주전남증친회 문화유사 용정 기

재경화수회 산악회 소식

재경 화수회 광이 산악회(회장 종철)는 2024년 10월 27일(일) 성남 선영(둔촌, 사인공, 대사간공 묘역) 일원의 별초 정화작업을 시행하였다. 아침 일찍 8시에 성남재실 앞에 모여 아침 조식으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곧 바로 14명의 산악 회원들이 별초를 하기 시작하여 11시쯤 마무리하였다.



재경화수회 산악회

참여한 회원들은 묘소에 고유를 올린 후 둔촌대로에 있는 덕원생고기 식당에서 삼겹살구이와 반주를 나누며 일가 화친의 귀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격려금을 보내주신 사인공파 종회(용환 재

무이사)와 이날 별초 정화 작업에 수고하신 회원은 종철 회장 내외분, 전 회장 시하, 종덕, 산악대장, 복수, 운태, 종경, 근찬, 진호, 명수, 성문, 영교, 재석, 승재, 용세 내외분 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광이 산악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및 종인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월에는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강원도 원주에 있는 소금산 산행을 하고자 합니다. 광이 산악회 회원 선착순으로 접수코자하니 이점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광이산악회 산악대장 종덕 기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2024년 10월 구독 및 찬조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름	금액	주소
이운래	10,000	경기 포천	이석화	10,000	서울 동대문	이주혁	10,000	충남 태안
이근식	10,000	경기 고양	이종원	10,000	경기 하남	이주성	10,000	서울 강동
이용필	20,000	경기 수원	이종용	10,000	경기 안산	이용선	10,000	경기 여주
이용갑	10,000	전남 보성	이종혁	10,000	경기 양평	이구재	10,000	충남 태안
이형수	10,000	경기 양주	이춘만	10,000	경기 군포			

▶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봐주십시오.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만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총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중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시시오.

광주이씨대총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4年 11月 1日

<제404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이주영

編輯人 : 이용두

主幹 : 이주병

發行處 : 광주이씨대총회

www.gwanglee.or.kr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길 31-8, 광릉빌딩 501호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1720@nate.com